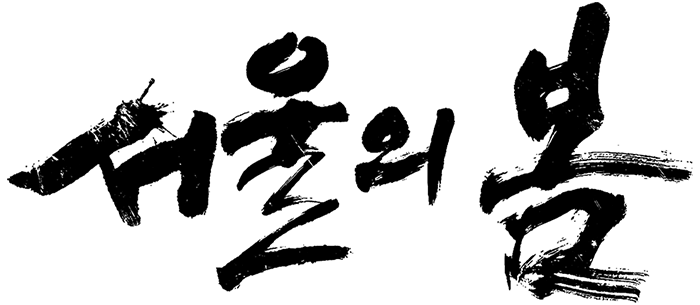
****

**권력욕으로 군사반란에 동조한 9사단장**

**주동자에 가려진 거대한 야망과 속내**

**박해준 캐릭터 스틸 공개!**

영화 <서울의 봄>이 9사단장 노태건 역을 맡은 배우 박해준의 스틸을 공개했다. [감독: 김성수 | 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| 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]

**김성수 감독 “시나리오보다 더욱 살아 숨 쉬는 캐릭터로 탄생”**

**박해준 “우유부단해 보이지만 숨겨진 야망이 있는 인물”**

**2인자의 망설임과 권력의 기차에 편승하기까지의 입체적 변화를 그리다!**

****

**<서울의 봄>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.** 선 굵은 연기와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박해준이 군사반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9사단장 노태건으로 분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극에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.

노태건은 전두광의 친구이자 반란군의 2인자로, 전두광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하는 캐릭터다.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전두광에게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, 실은 누구 못지않은 권력욕을 가진 노태건의 이중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내 극의 몰입도를 높일 전망이다.

김성수 감독은 **“박해준 배우는 캐릭터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후 움직인다. 그만큼 해석력이 뛰어나고 지성적으로 섬세한 배우”**라며, **“노태건이라는 인물은 박해준 배우 덕분에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며 시나리오상에서 구상했던 것보다 더욱 살아 숨 쉬는 캐릭터로 탄생했다”**고 전해 박해준의 캐릭터 소화력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.

박해준은 **“<서울의 봄>은 실제 사건에 김성수 감독님의 상상력이 동원된 작품인데,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흥미로웠다”**며 출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. 이어 **“우유부단해 보이지만 모험적이지 않을 뿐 숨겨진 야망이 있는 인물로 표현하고 싶었다. 감독님과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, 극 중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가 변해가는 과정에 집중했다”**라며 노태건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했다.

영화 <서울의 봄>은 오는 11월 22일 극장 개봉한다.

**INFORMATION**

제목: 서울의 봄

영제: 12.12: THE DAY

감독: 김성수

출연: 황정민, 정우성, 이성민, 박해준, 김성균 외

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

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

러닝타임: 141분

관람등급: 12세 이상 관람가

개봉: 2023년 11월 22일

**영화<서울의 봄>에 대한 문의는**

**앤드크레딧&credit 02-543-19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*